

## 한은, 창립 70주년 한국의주화 경쟁률 3:1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세트의 총 예약물량이 발행물량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할 후 다음달 12일부터 교부될 예정이다.

한은은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세트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구매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1만2345세트가 접수돼 발행예정량인 7만세트를 상회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은 창립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프루프급 고품질 현용주화세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과 한국조폐공사는 오는 25일 공개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쟁률은 3:1이다.

추첨방식은 신청인원이 7만명 이하일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7만명 이하일 경우 신청자 모두에게 1인 1세트씩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7만명 초과인 경우 1세트당 1개의 번호(난수)를 부여한 후 무작위로 추첨이 진행된다. /김희주 기자 hj89@



### NH농협금융, 영농철 일손부족 농가 지원

NH농협금융지주는 19일 경영기획부문 임직원봉사단 30여명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화훼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태 경영기획부문장(부사장)과 임직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직접 농가를 찾아 화분 나르기, 화분 꽃 심기, 잡초 제거, 배수로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를 지원했다.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는 19일 경영기획부문 임직원봉사단 30여명이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위치한 화훼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태 경영기획부문장(부사장)과 임직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직접 농가를 찾아 화분 나르기, 화분 꽃 심기, 잡초 제거, 배수로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를 지원했다. /NH농협금융



### aT, 경북특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협약

aT, 경북특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aT와 진흥원 외에도 유통업체 (주)아라프룻, (주)마인드와 수집업체인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참여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지난 1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조은기) 등 4개 기관과 경상북도 농식품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aT와 진흥원 외에도 유통업체 (주)아라프룻, (주)마인드와 수집업체인 백두대간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참여했다. /aT



### NH농협은행, 은평구청에 코로나 피해농가 농산물 전달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HR·업무지원 및 신탁부문 박태선 부행장(왼쪽 네번째)과 직원들이 은평구청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농가 농산물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박 부행장과 임직원들이 전달한 코로나19 피해농가 농산물은 은평구 사회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은평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사회 복지시설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HR·업무지원 및 신탁부문 박태선 부행장(왼쪽 네번째)과 직원들이 은평구청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농가 농산물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박 부행장과 임직원들이 전달한 코로나19 피해농가 농산물은 은평구 사회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은평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사회 복지시설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 교원그룹, 고객지원 등 IT서비스 '국제표준 인증'

교원그룹의 IT 서비스가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았다. 교원그룹은 고객지원 서비스 및 업무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IT서비스 부문 국제 표준인증인 'ISO 20000'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발판으로 교원그룹은 향후 IT서비스 관리(ITSM) 시스템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교원그룹

교원그룹의 IT 서비스가 국제적 수준을 인정받았다. 교원그룹은 고객지원 서비스 및 업무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IT서비스 부문 국제 표준인증인 'ISO 20000'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발판으로 교원그룹은 향후 IT서비스 관리(ITSM) 시스템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 솔루션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교원그룹

##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홍경안

시시일각

글로벌 미술매거진 『아트뉴스』는 최근 네덜란드 반 고흐미술관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 근무하는 큐레이터 8명이 꼽은 '최고의 반 고흐 작품'들을 공개했다. 우리에게도 낯익은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1889)을 비롯해 '아이리스' (1890), '자화상' (1887), '생 레미 풍경' (1889), '프로방스의 시골 길' (1890) 등 모두 8점이다.

이 가운데 '자화상'은 사망 3년 전의 고흐를 담은 것이고, '프로방스의 시골 길'은 그의 또 다른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 (1889)과 닮은 작품이다. '생 레미 풍경'은 고흐 인생 마지막 거처였던 프로방스 요양원 인근을 그린 그림으로, 모두 세상에 버림받은 말년의 지친 삶, 구원의 손길이 절박했던 당시를 가장 솔직하게 담은 '피에타' (1889) 못지않게 중요한 작품들이다.

내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난 '감자 먹는 사람들' (1885)을 선택했을 것이다. 자식이 늙은 어미에게 감자를 건네 주거나 남편에게 시시콜콜한 일상을 들려주는 아내, 등을 돌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음에도 웬지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느껴지는 딸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감사와 애정, 가족 간 인간미를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들(1885)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고흐는 노동의 정직함을 넘어 내면에 흐르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것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사랑과 연민, 간신히 숨을 연명할 수 있는 감자 몇 알조차 나누는 배려의 마음이었다.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을 고치고 또 고쳤다. 그렇게 덧칠을 거듭한 끝에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걸작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반 고흐는 이 그림을 자신의 첫 작품이라고 했다. 이전 그림들은 단순한 습작에 불과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일까. 어둡고 칙칙하며 우울한 인상의 작품임에도 '감자 먹는 사람들'에는 흉내 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 바로 경건함과 숭고함이다.

경건함과 숭고함은 맑은 영혼에서

비롯된다. 영혼은 생명의 뿌리요 바탕이다. 영혼이 맑은 자들은 사랑도 맑다. 그러나 세속적 권세와 물질적 욕망, 이기에 치우친 오늘날의 환경은 동시대인들의 영혼을 탁하게 만든다. 작든 크든 뭔가를 차지하고 빼가지 않으려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케 하며 사랑과 배려를 잊게 한다.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포용과 공감의 누락된 공동체란 어떤 의미인지 자문하게 만든다.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과연 저 그림 속 농부들보다 진정한 풍요로운 삶인지 되물게 한다. 물질로 지위와 계급을 매기고 생산성이 곧 인간의 가치로 치부되는 현실에선 특히 그렇다. /미술평론가

## 우리銀, 인니에 코로나 방호복 5000벌 기부

### 현장 의료장비 부족해 의료진 감염 현지 한국계 공장 생산 방호복 전달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의료진이 착용할 방호복 5000벌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사회적 제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방호복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가 부족하여 많은 의료진이 감염됐고, 의약품과 의료장비 원재료 90%가 수입에 의존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소다라은행은 어려운



최정훈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오른쪽)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이브누(ibnu)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환경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의료진을 위해 현지 한국계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호복을 지원한다.

최정훈 법인장은 "사회적 제약을 시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 그리고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

료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지원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인사

◆특허청 ◇ 부이사관 승진 △비서관 정기현 ◇ 과장급 승진 △산업디자인심사팀장 정일남 △주거기반심사과장 여덕호 △환경기술심사팀장 신주철 △특허심판원 심판관 목승균 △특허심판원 심판관 배재현

◆시사IN △미디어랩장 김은남 △미디어랩 팀장 안희태 △경영기획실장 고계규

◆경희대 △학부무총장(서울) 남순건 △논문정보대학원장 이상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장 겸 전자정보대학장 겸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장 조민형 △정경대학장 박희제 △생활과학대학장 한명호 △약학대학장 임동순 △응용과학대학장 변승호 △인사처장 장백기 △총무관리처장(국제) 겸 연승림장 변호현 △국제교류처장 정원석 △신문방송국장 남윤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물류산업과장 이진철

### 부음

▲ 인영선(서예가) 씨 별세 = 18일 오후 8시 40분, 충남 천안시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1호

실, 발인 21일 오전 9시, ☎ 041-621-8011.

▲ 장영임씨 별세, 박영식·박영대(매일경제 경리부장)씨 모친상 = 19일, 남양주 국민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6시.

▲ 최영순씨 별세, 박용석(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박운석(CEO스코어 데일리 논설실장)씨 모친상 = 19일 오전 6시 45분, 서울성모병원 23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 임정길씨 별세, 임택동(KNN 보도팀 차장) 부친상 = 18일, 부산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20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영락공원